

폭염으로 돼지 2만두 이상 폐사

- 직접 피해액만 25억 7천만원 추정

취재 : 김동성

한달이상 계속되고 있는 가뭄과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고온과 일사병으로 돼지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7월 27일 현재 농림수산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서는 돼지 8,086두, 닭 857,000수, 소 212두, 기타 가축 81,000두 등 총 946,298두의 가축이 계속되는 폭염으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폭염으로 폐사한 돼지는 경남이 2,689두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남으로 2,601두, 경북 1,341두가 폐사했다. 이밖에도 전북 626두, 충남 419두, 광주 177두, 경기 159두, 충북 68두, 대구 6두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폐사두수

는 폭염이 당분간 계속 이어지고 폐사가축이 행정기관에 정확히 신고되지 않고 있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폐사두수, 더욱 늘어날 듯

한편 본회가 각 지부조직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월 28일 현재 전국에서 고온 및 일사병으로 폐사한 돼지는 모든(도태돈 포함)이 3,111두, 육성·비육돈 1,423두, 자돈 16,945두로 총 21,479두에 달하고 있다.

폐사에 따른 직접피해액은 모두가 15억 5천5백만원, 육성·비육돈 1억 7천1백만원, 자돈 8억 4천7백만원 등 25억 7천

3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별 돼지 폐사두수는 경남이 4,115두로 가장 많고, 경기 3,876두, 전남 3,608두, 충남 3,536두, 경북 2,325두, 충북 2,105두, 전북 1,914두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제주도와 강원도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돈사시설이 대부분 현대식 시설에 비해 재래식 돈사가 많고, 분뇨처리를 위해 톱밥돈사를 설치한 농가가 많아 피해가 크다. 특히 기업농가보다는 영세·전업규모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번 가뭄과 폭염은 84

〈표〉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돼지 폐사두수

('94년 7월 28일 현재)

구분	모돈(도태돈 포함)	자 돈	육성·비육돈	계
경기	612두	2,941두	323두	3,876두
강원	—	—	—	—
충북	341	1,647	117	2,105
충남	498	2,814	224	3,536
전북	231	1,540	143	1,914
전남	543	2,830	235	3,608
경북	248	1,943	134	2,325
경남	638	3,230	247	4,115
제주	—	—	—	—
계	3,111	16,945	1,423	21,479

주 : 본회 지도부 조사(본회 각 지부를 통해 조사한 내용임)

-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

정부, 특별대책 마련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본 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와 7월 23일 긴급 가뭄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전 행정기관을 통해 폭 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고온기 가축사양관리 요령 등을 긴급 제작, 배포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피해 양돈농가에 대한 특 별양돈자금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축 집단 사육지역의 가축피해 방지를 위해 중앙재해대책비중에서 관 정규칙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양돈농가에서는 폭염으로 인 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돈 사에 송풍기나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고, 천장에 물안개 분무 장치를 설치해서 물을 뿌려 주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돈방당 사육두수를 감소시켜 밀사를 방 지하고 임신돈사와 분만돈사에는 모든 머리에 물방울이 떨어 질 수 있도록 장치해야 한다. 종 부는 가급적 서늘한 아침, 저녁 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한편 본회는 가뭄과 폭염으 로 인해 돼지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본회와 해당 시·군에 피해신고를 해 줄 것 을 바라고 있다. **●**

년이래 최고 심각한 것으로, 우 리나라 상공에 매우 강한 북태 평양 고기압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낮기온 이 32~39℃에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과 27일에는 영남과 호 남, 충청지역에서 비가 내리기도 했으나, 극히 일부 지역을 제 외하고는 해갈이 되지 않고 가 뭄이 계속되고 있다. 기상대는 가뭄해갈에 도움이 되는 태풍 이 2개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 상되나 그 시기나 진로 등이 매 우 유동적이어서 가뭄과 폭염 으로 인한 피해는 축산분야뿐 만 아니라 농업과 산업 전반에 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다.

돼지는 고온이 계속될 경우 일사병과 열사병에 걸릴 확률

이 높고, 이로 인해 폐사율과 유 산, 사산율이 증가하고, 종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태 율이 크게 떨어지는 직접 피해 를 입게 된다. 또한 무더위로 인 해 채식량이 급감하므로 성장 률과 사료효율이 저하되고 산 자수 감소, 위축돈, 조산 발생률 이 크게 늘어나는 간접피해를 입게 된다. 이로 인해 돼지고기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금년도 평균 기 온은 5월이 평년대비 0.8℃, 6월 0.7℃, 7월 4.7℃나 더 높고, 강우 량은 7월 20일까지 전국 평균 450mm를 기록해 평년대비 무 려 220mm나 적다. 특히 6월 1 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강우량 이 153mm로 평년보다 186mm 나 적은 수치다.